

## 注重灸法派에 관한 歴史的 考察 (“不論虛實寒熱 無所不宜” 灸法派를 中心으로)

임한제\* · 윤종화\*

---

### ABSTRACT

An historic study on the school  
that attached importance to moxibustion

Han-Je, Lim\* · Jong-Hwa, Yoon\*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As compared with acupuncture, The moxibustion occurred differently in the background of formation and also disagreed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From the Jin(晉) dynasty to the Song(宋) dynasty, The school that attached importance to moxibustion had occupied superiority by far and had schemed the development of moxibustion. But after the Song(宋) dynasty, The school that attached importance to acupuncture rose. Therefore, The school that attached importance to moxibustion, even if the power decreased, still had kept in existence and had achieved the development of moxibustion.

Especially, Among the chinese physicians that recognized "Moxibustion can cure all disease, so don't discuss the weakness · the firmness · the chills · the fever and cauterize the skin" till the Song(宋) dynasty,

Ge Hong(葛洪) put in order the basic theory for moxibustion in 《Zhou Hou Bei Ji Fang, 肘後備急方》(A handbook of prescriptions for emergencies).

Wang Tao(王燾) only respected the moxibustion and said "Moxibustion has a strange effect, then all acupuncture · herb-med(medical decoction) · herb-ex are unattainable to it" in volume 14 《Wai Tai Mi Yao, 外臺秘要》(Medical secrets of an official).

Dou Cai(竇材) insisted that moxibustion is prime for supporting the Yang(陽) and always must be cauterized with moxa on Guan Yuan(關元) · Qi Hai(氣海) · Ming Guan(命關), Zhong Wan(中脘) etc. for supporting the Yang of Pi Shen(脾腎) in 《Bian Que Xin Shu, 扁鵲心書》

---

key word : moxibustion, 《Zhou Hou Bei Ji Fang, 肘後備急方》, 《Wai Tai Mi Yao, 外臺秘要》, 《Bian Que Xin Shu, 扁鵲心書》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본 논문은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게재 연구비 지원을 받아 게재함.

## I. 緒 論

灸法은 艾葉을 使用하여 人體 皮膚上의 一定 部位에 點火燃燒시켜 艾葉 特有的 芳香을 發生케 하여 溫熱的 刺戟으로 各種 機能을 調節하고 身體健康을 增進시켜 疾病治療와 防痛, 緩和, 恢復, 豫防의 目的이 있는 一種의 外治法이다.<sup>1)</sup>

灸法은 오랜 옛날 人類가 疾病과 鬭爭하면서 생겨난 產物이며 그 起源은 人類의 불의 使用과 關聯이 깊다. 皮膚의 一部 區域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지저 주었을 때 誘發되는 特定 疾病에 대한 效果는 經驗醫學의 次元에서 傳承되어 灸治療法이 생겨나게 되었고 現在까지도 鍼灸學의 重要한 部分을 이루고 있는 治療法이라 할 수 있다.<sup>2)</sup>

灸法은 針法과 그 形成 背景을 달리 하여 일어났으며 그 發展 過程 역시 一致하지는 않아 針法을 중요시한 學派와 灸法을 중요시한 學派(이하 '注重灸法派' 라 한다) 또는 針法과 灸法을 結合하여 적절히 選擇해서 治療함을 중요시한 學派 등 여러 鍼灸學派가 있는 바, 晉代에서부터 宋代에 이르기까지는 灸法을 重視한 學派가 鍼灸學 歷史에서 월등한 優勢를 占하며 灸法의 發展을 圖謀하여 왔고, 宋代以後에는 針을 重視한 學派가 興起함으로써 注重灸法派는 비록 그 세력이 減少하였으나 여전히 命脈을 維持하면서 灸法의 發展을 이룩하여 왔다.<sup>3)</sup>

이에 著者는 中國針灸歷史에 있어 灸法의 盛興 期라 할 수 있는 宋代까지의 注重灸法派의 各家 學說 중에서 특히 '灸法 不論虛實寒熱 無所不宜'<sup>4)</sup> 라는 學說을 繼承·發展시켜 온 醫家들의 學說 및 그들의 著書에 대한 研究의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歷史的·文獻的 資料를 살펴본 바, 郭世余의 <中國針灸史>, 林昭庚 등의 <針灸醫學史>, 張吉編의 <各家針灸醫籍選>, 陳克正의 <古今針灸治驗精華>, 謝錫亮 등의 <灸法> 등이 있으나, 國內에서는 아직 注重灸法派에 대한 研究가 뚜렷하지 않기에, 이들 醫家의 學說 및 書籍을 中心으로 研究하여 敘述하고 이를 통해 灸法의 歷史的 變遷 過程을 考察해 본 바,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고자 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러한 注重灸法派의 '不論虛實寒熱 無所不宜' 學說은 宋代 寶材로 繼承되어 그의 著書인 <扁鵲心書>에 學術 思想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으니, 이에 대한 考察은 다음에 論하기로 한다.

## II. 本 論

### 1. 注重灸法派에 대한 研究

#### 1) 注重灸法派의 嚆矢

灸法을 重視한 學派는 그 由來가 아주 오래되었는데, 現存하는 最初의 灸法專門書인 馬王堆 漢墓 帛書 중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에서 그 起源을 찾아 볼 수 있다.<sup>5)</sup> 또한 曹翕의 <灸經>은 先秦時代의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을 繼承하여 만든 또 하나의 灸法에 관한 專門書籍이다.<sup>6)</sup>

#### (1) 馬王堆 漢墓 帛書

1973年 末期에 長沙 馬王堆 漢墓에서 出土된 遺物들은 대부분의 帛書와 일부분의 竹簡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들 書籍들은 모두 20여 種, 약 12만 字로 構成되어 있으며, 그 內容은 哲學, 歷史가 主流로 되어 있지만, 醫學을 포함한 自然科學

1) 崔容泰·李秀鎬 共著 : 精解鍼灸學, 杏林書院, 1974, P.42.  
 2) 李栽東·金南一 共編 : 中國 針灸醫學의 歷史, 集文堂, 1997, P.21.  
 3) 陳克正 主編 : 古今針灸治驗精華,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3.  
 4) 謝錫亮·許曉琳 編著 : 灸法, 山西人民出版社, 1984, P.20

5) 魏稼 主編 : 各家鍼灸學說,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3, P.15  
 6) 郭世余 編著·朴寅圭 譯 : 中國針灸史, 圖書出版信成, 1987, P.49

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 있다. 이 가운데 醫學에 관한 書籍은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 甲本, <脈法>, <陰陽脈死候>, <五十二病方> (이상 다섯 종류의 醫書가 한권의 帛書로 되어 있다.), <却穀食氣>, <陰陽十一脈灸經> 乙本, <導引圖> (이상 세 종류의 醫書가 한권의 帛書로 되어 있다.), <養生方>, <雜療方>, <胎產書> (이상 세 종류의 醫書가 한권의 帛書로 되어 있다.) 등으로 되어 있다.<sup>7)</sup> 특별히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 甲本, 乙本은 중국 最古의 經脈에 관한 專門書籍이며, 모두 治療方法으로 灸法만을 論하고 있고, 또한 寒熱虛實의 辨證施治의 概念도 없다.<sup>8)</sup>

<足臂十一脈灸經>은 모두 34행으로 되어 있는데, '足'과 '臂'라는 두 가지 篇目이 붙어 있다. '足'은 下肢에 있는 6개의 脈이 포함되어 있고, '臂'은 上肢에 있는 5개의 脈이 포함되어 있고 臂厥陰脈이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각 脈마다 그 아래에 그 脈의 循行部位와 主治症과 灸法이 기록되어 있다. 전체적인 特徵은 11개 脈의 循行方向이 모두 求心性을 띠는 것과 治療法에 있어서 灸法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穴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針法에 대한 기록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것 등이다. 灸法에 대해 한 예를 들면: '足少陰溫(脈): …… 其病: 病足熱, 膊(臑)內痛, 股內痛, 腹街, 脊內兼(廉)痛, 肝痛, 心痛, 煩心, …… 牧牧者(嗜)臥以欬(咳). [諸]病此物 [者, 皆久(灸)] 足少陰 [溫(脈)]'<sup>9)</sup> 등이 있다.

<陰陽十一脈灸經>은 墓에서 같은 내용의 寫本이 나왔으므로 이를 甲本과 乙本으로 나누어 불렀다. 甲本은 모두 37행이며, 乙本은 모두 18행으로 中間에는 缺文이 많다. <足臂十一脈灸經>과의 차이점은 첫째, 11脈의 배열순서가 陽脈이 앞

에, 陰脈이 뒤에 있는데 이것은 <足臂十一脈灸經>과 반대이다. 둘째, 전체적인 文體는 <足臂十一脈灸經>과 같고 또 두 가지는 모두 먼저 각 脈의 循行部位를 論한 후에 주관하는 病과 灸法을 말하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 進步되어 豊富해졌다. 셋째, <足臂十一脈灸經>보다 進步된 것이 分明하므로 그 成書 年代도 늦을 것은 疑心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手三陽脈의 경우에 肩脈, 耳脈, 齒脈 등 원시적인 名稱이 存在한다. 이것은 당시에 存在한 서로 다른 學派의 서로 다른 傳本이기 때문일 것이다. 灸法에 대해 한 예를 들면: '少陰脈(脈): …… 其[所產病]: …舌拆(坼), 噎乾, 上氣, 體(噎), 噎中痛, 痺, 者(嗜)臥, 欬, 音(瘡), 爲十病. [少]陰之脈(脈), [久(灸)則強食產肉, 緩帶], 皮髮, 大丈, 重覆而步, 久(灸)幾息則病已矣.'<sup>10)</sup> 등이다.

이 두 書籍을 比較하면 經脈의 名稱이 다르고, 循行方向에 다소간의 差異가 있고, 主病이 差異가 나며, 모두 治療方法으로 灸法만을 論하고 있고 病證의 虛實 分類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2) 曹翕과 <灸經>

曹翕은 三國時代 魏나라 사람으로 針法에 능통하였으나, 隋의 楊上善은 그의 著書는 <灸經>이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曹翕이 灸法에 精通하였음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原書는 이미 消失되어 완전한 內容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古醫籍중에 그 흔적을 發見할 수 있다. 즉 <肘後備急方> 卷三 (治風毒脚弱痺滿上氣方) 第二十一과 <千金方> 卷二十九 등에 一部가 引用되어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肘後備急方> 卷三 (治風毒脚弱痺滿上氣方) 第二十一에 이르기를: "그 灸法을 施術할 穴은 매우 많지만 사람들이 모두 그 位置를 알지 못할까 두렵다. 여기에는 단지 그 重要한 것들 몇 가지만 記錄하니 반드시 위에서부터 治療해 나가야 한다. 만약 곧장 다리에 쏘한다면 氣가 올라가 위에서 泄이 안되어 危險해지게 된다. 먼저 大椎에 灸를 해야 한다. …… 모

7) 李栽東·金南一 共編: 上揭書, P.41~42

8) 尹鍾和·金甲成: 馬王堆 漢墓出土 醫書中 足臂十一脈灸經 및 陰陽十一脈灸經과 靈樞經脈篇과의 比較 考察, 韓醫學研究所論文集 第一輯, 1992, P.126~128

9) 周一謀·蕭佐桃 主編: 馬王堆醫書考注,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8, P.10

10) 周一謀·蕭佐桃 主編: 上揭書, P.36~37

든 穴은 <灸經>에 나와 있으나 具體的으로 記載되어 있지 않다.”<sup>11)</sup> 라고 했다. 이는 <足臂十一脈灸經> 과 <陰陽十一脈灸經>의 影響을 많이 받은 것으로 思料된다.

또한, 曹翁은 <灸經>에서 灸의 禁法에 대해서도 重要的 見解를 提示하였다. 이는 <醫心方> 卷二 第四에서 <小品方>을 引用한 文章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르기를: “曹氏가 灸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아래와 같다. : …… 丘墟는 蹄溪라고도 하는데 바깥 복사뼈 아래에 少耶의 앞 가까이 있어 소리가 나는 곳의 방이며 根源이다. 病이 없다면 뜸을 떠서는 안된다. 뜸을 놓으면 氣가 내려가 위로 通하지 못하게 되어 소리가 잠기니 말을 못하게 된다. 病이 있다면 十四壯을 灸한다.”<sup>12)</sup> 라고 했다. 曹氏는 灸의 壯數는 많고 적을 수 있고 一定치 않다고 했으며 病의 輕重에 따라 이를 行하고 融通性없이 變通을 모르면 안 된다고 하였다.

曹翁의 <灸經>은 先秦時代의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을 繼承하여 만든 또 하나의 灸法書이다. <足臂十一脈灸經>과 比하면 大椎, 肩井, 臚中, 巨闕, 血海, 丘墟, 關元등과 같은 灸法의 孔穴이 많이 增加되었고, 灸法의 禁忌에서도 그는 보다 具體的으로 說明하고 그중 臚穴의 名稱과 灸를 禁하는 原因등을 說明하였으며, 뜸의 壯數는 많고 적을 수 있어 一定치 않다고 했다.<sup>13)</sup>

曹翁의 <灸經>에서는 秦漢 三國時代에 이르러

11) 葛洪 撰: 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 , P.57.

“其灸法孔穴亦甚多, 恐人不能悉皆知處, 今止疏要者, 必先從上治, 若直灸脚,

氣上不泄則危矣, 先灸大椎. …… 諸穴出灸經, 不可具載之.”

12) 丹波康賴 撰, 翟雙慶·張瑞賢 校注: 醫心方, 華夏出版社, 北京, 1993, P.48~49

“曹氏說不可灸者如左: …… 丘墟者, 名爲蹄溪, 在外踝下, 少耶近前是也,

人聲室之房源; 無病不可灸, 灸則氣下不能上通, 令瘡不能言; 有疾可灸十四壯.”

13) 郭世余 編著·朴寅圭 譯: 上揭書, P.49

灸法의 發展을 나타내며 同時에 또한 灸法의 發展도 促進시켰다. 兩晉, 南北朝에 葛洪등이 灸法을 倡導하고 重要視한 것이나 唐代의 王燾가 針을 使用하지 않고 灸法만을 使用한 것은 曹翁의 灸法이 널리 傳播되어 晉唐에 깊은 影響을 주었기 때문에 여겨진다.

2) 晉代에서 宋代까지의 注重灸法派

晉代에서 宋代까지의 時期는 注重灸法派가 월등한 優勢를 點하였다. 晉代의 葛洪(<肘後備急方>), 陳延之(<小品方>), 唐代의 孫思邈(<千金要方>) 등은 灸法을 重視함에 치우친 醫家들이다. 특히 唐代의 王燾(<外臺秘要>)는 오직 灸法만을 崇尚하였다. 그의 著書인 <外臺秘要> 卷14에 이르길 “火艾는 특별히 奇異한 效能이 있어서 針, 湯, 散 등은 모두 미칠 수 없고 灸가 최고로 重要하다.”<sup>14)</sup> 라고 했다. 唐代의 <黃帝明堂灸經>은 灸法을 專的으로 論한 專門書이다. 宋代의 莊綽(<膏肓灸法>), 寶材(<扁鵲心書>), 許叔微(<普濟本事方>), 王執中(<針灸資生經>), 聞人耆年(<備急灸法>) 등은 모두 灸法을 중시한 大家이다. 莊綽은 膏肓穴에 灸를 하여 諸病症을 治療한다고 主張하였고, <西方子明堂灸經>에 包含된 <銅人鍼灸經>에서는 灸治療의 臚穴을 系統的으로 紹介하였으며, 寶材는 <扁鵲心書>에서 扶陽에는 灼艾가 第一이며 脾胃의 陽을 扶함에 항상 關元·氣海·命關·中脘 등의 穴을 灸하라고 主張했고 더불어 睡聖散을 創製하여 艾灸時의 痛症을 輕減시킬 수 있다고 主張했다. 許叔微는 <普濟本事方>에서 傷寒陰證과 傷寒結胸에서의 灸法을 發展시켰으며, 王執中은 <針灸資生經>에서 灸法을 중시하면서 脾胃와 心腎의 作用을 중시하였다. 聞人耆年은 <備急灸法>에서 葛洪의 뒤를 繼承하여 急救灸學家의 一位를 차지했다.

3) 宋代이후의 注重灸法派

宋代이후에는 針法을 중시한 學派가 興起함으

14) 王燾 撰: 外臺秘要, 人民衛生出版社影印, 北京, 1996, P.375

로 말미암아 灸法을 중시한 學派는 비록 그 세력이 減少되었으나 代를 이어 命脈을 유지해 나갔다. 元代 羅天益(<衛生寶鑑>)은 針보다 灸를 중시한 醫家로서 中脘·氣海·足三里에 灸治療함을 많이 取했고, 朱丹溪(<丹溪心法>)도 灸를 중시하여 灸法은 火를 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火를 瀉할 수도 있다고 認識하였으며, 胡元慶(<癱疽神秘灸經>)은 外瘍에 대해 遠道灸法을 採用하였다. 明代 <世醫得效方>을 쓴 危亦林, <外科發揮>를 쓴 薛立齋, <類經圖翼>을 쓴 張介賓, <紅爐點雪>을 쓴 龔居中 등도 灸를 중시한 學家이다. 以外에도, 莊應琪의 <補要袖珍小兒方論>에 <小兒明堂灸經> 全文이 收錄되어 있고, 彭用光的 <簡易普濟良方>에는 胡元慶의 <癱疽神秘灸經> 全文이 收錄되어 있어 이들도 明代의 灸를 중시한 學派라 할 수 있다. 清代 葉廣祚의 <採艾編翼>, 吳亦鼎의 <神灸經綸> 등도 灸治療學을 專의으로 論한 두 部類의 重要著作이다.<sup>15)</sup>

#### 4) 注重灸法派의 灸法에 대한 認識

이처럼 灸法을 중시한 學家들이 많이 있으나, 그들의 著作중에는 각기 다른 認識하에 論述한 것이 적지 않다. 灸法은 能히 百病을 通治하니 虛實寒熱을 論하지 말고 無所不宜로 灸하라고 認識한 部類로 葛洪·陳延之·王壽·竇材·龔居中 등이 있고, 灸法은 단지 陰盛陽虛의 寒證에 사용함이 마땅하며 陰虛陽盛의 熱證에는 사용함이 不可하다고 認識한 部類로 張仲景·沈括·張從正·汪機·王孟英·陸以恬 등이 있고, 實熱證에도 可以 灸法을 사용할 수 있다고 認識한 部類로 王執中·劉完素·羅天益 등이 있고, 針法·灸法·藥物을 病因에 따라 적절히 選擇 또는 結合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認識한 部類로 孫思邈·李杲·徐春甫·高武·吳昆·張介賓·楊維傑 등이 있다.<sup>16)</sup>

## 2. '灸法 不論虛實寒熱 無所不宜' 灸法派에 대한 研究

### 1) 葛洪과 <肘後備急方>

葛洪은 東晉의 著名한 醫藥學家며 道家로서 字는 稚川, 號는 抱朴子며 丹陽 句容人이다. 西晉 3世紀 後期에서 東晉 4世紀 前期까지 살았으며 享年 81세이다. 그는 性品이 순박하고 입이 무겁고 말이 솔직하며 煉丹之術을 좋아하여 煉丹의 名家로 모든 學文에 精通하였다. 晩년에는 廣東 羅浮山에 隱居하였으며 後世人들은 葛仙翁이라고 尊稱하였다.<sup>17)</sup>

그는 <玉函方>에서 救急醫療에 쓰이는 實用的이면서 效果가 있는 單方 및 간단하면서도 긴요한 灸法을 따와 記錄하여 <肘後備急方>을 編纂하였다. 最初의 이름은 <肘後救卒方>이었는데, 후에 梁나라 陶弘景이 101개의 處方을 增補하여 <補闕肘後百一方>이라 하였고, 다시 金나라 楊用도가 增補하여 <附廣肘後方>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이 現存하는 <肘後備急方>으로서 전부 8卷으로 되어 있다. 이 冊은 2만여 字로 되어 있고, 각종 急性傳染病과 內科, 外科, 婦人科, 小兒科 등 病들의 原因, 症狀, 治療를 記錄하고 있다.<sup>18)</sup> <肘後備急方> 以外에도 <抱朴子>, <金匱藥方>, <玉函方>, <神仙服食方> 등의 書籍을 著述하였는데 마지막 두 권은 傳하지 않고 그 一部內容만 <外臺秘要>, <醫心方> 등에 傳해질 뿐이다.

<肘後備急方>에는 灸과 關聯된 몇가지 特徵이 있는데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針과 灸 가운데 대부분 灸를 사용하고 있다. 이 冊에 기록된 93種類의 病證 중에 30餘種의 病證에 灸法 治療가 記錄되어 있으며 內, 外, 傷, 婦, 五官 및 傳染病 등을 包括하고 있다. 針과 灸에 관한 處方 109條 중에 99條가 灸方이고 針方은 단지 10條밖에 없으므로 주로 灸法을 爲主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灸를 할 때의 穴자리 選擇, 施術操作方法, 作用, 效果, 注意事項 및 禁忌 등에 대해 상세히 比

15) 陳克正 主編：上揭書，P.3.

16) 謝錫亮·許曉琳 編著：上揭書，P.20~31

17) 謝錫亮·許曉琳 編著：灸法，山西人民出版社，1984，P.20

18) 吳楓：中華古文獻大辭典·醫藥卷，吉林文史出版社，P.157.

較 論述하고 있어 灸法의 基礎理論을 充實히 整理해 주었다고 할 만하다. 또한 疾病의 記述과 治療에 대해서도 醫學史上 最初의 史料가 되는 것이 적지않다.

둘째, 灸法을 危急한 症狀에 使用하기 簡便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이 冊이 救急醫療用이기 때문에 當然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가 撰集한 灸方에서는 많은 救急應變을 위한 內容이 있어 정말 危急하여 다른 方法이 없을 때만 이를 使用하니 스스로 목을 졸라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놀래죽거나, 별안간 죽는 사람에게 使用하였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 (救卒中惡死方)에 “줄로 죽은 사람의 팔꿈치와 손목을 묶고, 男子는 左側을 女子는 右側을, 줄을 등위에서 大椎 밑을 줄로 묶어 이를 灸를 놓고 줄의 半을 橫行한다. 이 방법은 灸를 3곳에 각각 3번 시술하면 죽은 자가 일어난다.”<sup>19)</sup> 또는 (救卒死尸厥方)에 “灸는 鼻人中 七壯으로 하며, 陰囊 밑의 去下부분 一寸 百壯을 灸한다. 婦人은 양가슴 사이를 灸한다.”<sup>20)</sup> 등등에서 알 수 있다.

또한, 應用에 편리하기 위해 그의 灸法에는 簡便, 廉의 3가지 特徵을 나타내고 있다. 使用할 穴자리를 20~30개로 限定시켜 危急할 때 使用하기 簡便하게 하였고, 取穴法 및 穴자리의 位置도 寸分이라 할 뿐 孔穴이라 名하지 않고 一目瞭然하게 整理하여 쉽게 利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주로 使用한 中腕, 人中, 承漿, 巨闕 등 네 穴자리는 重要한 救急穴로서 이미 <內經>에도 存在한다. 그러나 治療原則은 葛洪이 독자적으로 定한 것이고, 그 意圖 속에는 穴자리를 簡略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 숨어 있는 것이다.

셋째, 隔鹽灸·隔蒜灸에 대한 內容이 있어<sup>21)</sup>

隔物灸에 대한 最初의 記錄이 보인다. 隔物灸란 뜸을 뜬 때 뜸속과 穴자리 사이에 여러 가지 物質을 깔아주어 灸가 穴자리로 透지 않도록 해주는 方法을 말한다. 이 冊에 기록된 흔히 間接灸라고도 불리는 이 方法들로는 隔蒜, 隔鹽, 隔椒, 隔面, 隔瓦甌灸 등이 있다.<sup>22)</sup> 以後에 등장하는 많은 隔物灸法들은 모두 이로부터 影響 받았음이 분명하다.

넷째, 뜸을 뜬 때의 壯數의 基準을 設定하였다. 이것은 醫療技術의 體系的 發展이라는 側面에서 意義가 깊은 貢獻이다. 보통 疾病에 대해서는 7壯 以下를 뜬 주지만 危篤한 疾病에 대해서는 많이 뜬 것을 原則으로 하여 基準을 設定하고 있다. 다만 7壯 以上인 경우는 壯數에 관한 記錄을 ‘二七壯’, ‘三七壯’, ‘四七壯’ 하는 식으로 7의 倍數로 하였다. 이것은 少陽의 數인 7이 ‘火’를 代表하고 뜸의 效果가 補陽作用이라는 認識을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疾病의 심각성에 따라서만 壯數를 定한 것은 아니다. 部位에 따라 壯數를 다르게 할 것을 主張한다. 몸체에는 壯數를 많이 定하고, 머리·얼굴·四肢 등 말초에는 壯數를 적게 定하고 있다. 이것은 皮膚의 두께를 考慮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葛洪은 灸法을 重視하였고, 針法은 重視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후 唐代 王燾의 “針經을 적지 않고 灸法만을 取한다.”<sup>23)</sup>라는 見解에 그의 學術思想을 繼承하였다.

### 2) 王燾와 <外臺秘要>

王燾는 陝西鄜縣 사람이다. 그는 宦官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西紀 702年에서 772년까지 生存했다. 그는 어려서 疾病이 많아 커서는 醫術을 좋아하였다. 後에 國家 藏書인 弘文館에서 二十

19) 葛洪 撰 : 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 , P.13.

“又方 以繩圍其死人肘腕 男左女右 畢伸繩從背 上大椎度以下 又從此灸

橫行各半繩 此法三灸各三即起”

20) 葛洪 撰 : 上揭書, P.15.

“又方 灸鼻人中七壯 又灸陰囊下去下部一寸百壯 若婦人灸兩乳中間”

21) 葛洪 撰 : 上揭書, P.28, 95.

“又方以鹽內臍中上灸二七壯”, “灸腫令消法 取獨 顆蒜…灸蒜上百壯”

22) 程寶書 主編 : 新編針灸大辭典, 華夏出版社, 1995, P.900~906.

23) 王燾 撰 : 上揭書, P.1077. “今並不錄針經 唯取灸法”

餘年을 일하였고 著書로는 <外臺秘要> 四十卷, <外臺要略> 十卷이 있다.<sup>24)</sup>

그가 著述한 <外臺秘要>는 40卷으로 되어 있고 6000餘 個의 醫方이 收錄되어 있다. 이 冊은 <千金方>의 뒤를 이어 唐나라 初期와 그 以前의 醫學著作을 集大成한 것이다. 醫論 부분은 <諸病源候論>이 爲主이고, 內, 外, 婦人, 小兒科등의 醫方 부분은 <千金方>이 爲主이다. 대체적으로 方藥의 收集을 爲主로 하고는 있지만, 卷39에는 十二經脈과 관련된 457個의 穴자리의 主治, 灸法 및 注意事項 등 灸法을 專門的으로 論하고 있으며, 또한 數百個의 針灸處方이 記錄되어 있다.<sup>25)</sup>

그래서 王燾의 醫學에서의 貢獻은 天寶年間 以前의 古醫書등을 整理와 保存하였을 뿐 아니라 더욱 두드러지는 것은 灸法에서의 貢獻으로 그는 <黃帝內經>, <灸經>, <甲乙經>에 있는 孔穴, 經脈에 관한 內容을 繼承하고 또한 <千金方>과 甄權, 楊玄操 등 諸家의 灸法도 역시 繼承하였다.

이 書籍의 針灸에 관련된 貢獻을 살펴보면,

첫째, 많은 針灸書籍의 內容을 保存함으로써 鍼灸學術 發展에 지대한 貢獻을 하였다. 이 冊은 <姚氏集驗方>, <備急單要方>, <孟氏洗必效方> 등의 針灸文獻을 引用하고 있고, 扁鵲·崔知悌·蘇恭·甄權·張文仲·范遷·釋僧深·楊操 등의 經驗도 引用하고 있다. <外臺秘要>에서 이들 內容들을 記錄해주지 않았다면 이들 書籍들과 著者들의 貢獻은 歷史 속에 파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둘째, 灸法의 發展에 많은 貢獻을 하였다. 王燾는 灸法의 治療效果가 탁월함을 主張하고 있다. “灸는 특별히 奇異한 效能이 있어서 針·湯·散 등이 모두 미칠 수 없다”<sup>26)</sup>라고 한 것은 灸法에 관한 그의 믿음을 나타내준다. <外臺秘要> 卷39의 ‘明堂序’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針法은 예부터 深奧하다고 여겼는데 지금 사람들은 다 理解하지 못한다. 經에서 ‘針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는 없다’ 라고 하였으니, 만약 記錄해 두고자 한다면 性命을 損傷시킬까 두려워 여기에는 全然 針經을 記錄하지 않고 오직 灸法만을 取하였다.”<sup>27)</sup>

여기에서 그는 針으로 患者를 다치게 할 것을 念慮하여 灸法을 爲主로 治療할 것을 主張하고 있다. 그가 記錄하고 있는 穴자리들은 灸法을 使用하기 위한 것들이다. 이렇듯 灸法을 爲主로 穴자리를 運用하고 있는 것은 灸法의 適應症을 넓혀준 데에 功績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灸法을 臨床에 運用하는 關鍵性에 대해서 理論에서부터 進술을 進行해 나갔다.<sup>28)</sup> 灸法의 補瀉 問題에 있어 “모든 灸는 補瀉를 한다. 補는 불을 불지 않고 반드시 自滅케 한다. 瀉는 급히 바람을 불어 쏘므로 전달하고 불이 꺼질 때까지 한다.” 라고 했고, 또한 八木火法의 問題에 관해 “灸에는 소나무, 측백나무, 뽕나무, 대추나무, 대나무, 배나무, 단풍나무, 느릅나무 여덟 가지 나무의 使用을 禁한다. 만약 이를 使用하면 사람의 筋肉을 해치고 骨髓·筋脈을 다치게 한다.” 라고 했으며, 取火하는 方法의 問題에 관해 “햇빛으로 火를 取할 수 있고, 왜나무를 꺾어 국화 줄기로 불을 내어 砭石으로 이를 艾蒸할 수 있다.”고 했고, 邪가 皮毛에 들어가고 經絡·風·冷·熱의 灸法 問題에 관해 “風者를 灸하려면 적은 것부터 많은 것으로 해라. 三壯·五壯·七壯에서부터 三十·五十·七十壯까지 少에서 多로 한다. 寒을 灸하려면 多에서 少로 한다. 七十·五

27) 王燾 撰：上揭書, P.1077

28) 王燾 撰：上揭書, P.1077~1078

“凡灸皆有補瀉 補者無吹其火 須炷自滅 瀉者疾吹其火 傳其艾 須其火至滅也”

“凡灸忌用松栢桑棗竹柿楓榆八木 以用灸人 害人肌肉筋脈骨髓”

“映日取火 若陰無火 鑽槐木以菊莖延火 亦可砭石以艾蒸之”

“欲灸風者 宜從少以至多也 灸寒者 宜從多以至少也 從三壯五壯七壯 又從三十五

七十壯 名曰從少以至多也 從七十五三十 又從七百五百三百 名曰從多以至少也”

“衰老者少灸 盛壯肥實者多灸”

24) 郭世余 編著·朴寅圭 譯：上揭書, P.92

25) 李裁東·金南一 共編：上揭書, P.194

26) 王燾 撰：外臺秘要, 人民衛生出版社影印, 北京, 1996, P.375

十·三十壯에서 또 七百·五百·三百壯까지 多에서 少로 한다.”고 했고, 衰老盛壯의 灸法 問題도 “衰老는 灸를 적게 하고, 盛壯은 灸를 많이 한다.” 등등 灸法으로 臨床에서의 問題를 解決하는 것을 重視하였다. 그는 灸法의 理論과 臨床에 있어서 治療의 많은 問題를 總結하였고 後世의 模範이 되었다.

또한, 뜸을 떠줄 때의 壯數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다만 <甲乙經>과 差異가 있다. 商陽穴은 <甲乙經>에서 1壯 떠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冊에서는 3壯으로 되어 있고, 手五里穴은 <甲乙經>에는 3壯 <外臺秘要>에는 10壯, 環跳穴은 <甲乙經>에는 5壯 <外臺秘要>에는 50壯으로 되어 있다. 膝陽關穴은 <甲乙經>에서는 禁灸穴로 되어 있지만 이 冊에서는 5壯 떠 준다고 되어 있다. 이는 당시 針灸治療에서 다른 學術流派의 觀點을 重視하였음을 말해 준다.

셋째, 治療經驗을 總括하여 穴자리의 主治症으로 添加하였다. 王焘는 <黃帝明堂經>과 <甲乙經>을 崇尚하였고 이를 많이 參考하였다. 그는 “<黃帝明堂經>과 <甲乙經>은 醫師들이 숨겨놓은 보배이다. 後學들은 마땅히 이를 좇아 使用하여야 한다.”<sup>29)</sup> 라고 하였다. 그는 또 唐나라 初期의 針灸분야에서 大家로 통하는 甄權·楊玄操 등의 理論과 經驗 그리고 <千金方>에 나오는 內容 등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므로 <外臺秘要> 卷39의 ‘明堂’ 부분에 자신의 見解 뿐만 아니라 他人의 見解도 상당부분 記錄하고 있다. 예를 들어, 明堂孔穴의 方面에서 <外臺秘要>에는 <甲乙經>의 臑穴 전부를 包含한 것 外에도 足少陽膽經의 7개 雙穴을 添加시켰고, 그 添加된 7개의 穴자리들은 後腋, 轉穀, 飲隙, 應突, 脇堂, 旁庭, 始素<sup>30)</sup> 등이다.

以外에도 王焘는 經脈과 穴자리를 記錄해 놓은 그림의 必要性에 관해서는 孫思邈의 立場에 共感하여 “經이 있고 그림이 없으면 脈俞의 會合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 또 그림이 있고 經이 없으

면 百病의 要를 論할 수 없다.”<sup>31)</sup> 라고 했다. 王焘가 孫思邈의 彩色된 明堂圖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이러한 脈絡에서 理解될 수 있다. 다만 差異가 있다면 孫思邈은 甄權의 明堂圖를 標準으로 삼았고, 王焘는 <甲乙經>의 明堂圖를 標準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孫思邈은 仰人圖, 背人圖, 側人圖 의 세 개의 그림만을 그렸지만, 王焘는 “十二經에 사람을 그리고 이에 十二身이 있다.”<sup>32)</sup> 고 하여 12개의 經脈別로 12명의 사람을 등장시켰다. 그리고 灸를 禁하는 곳과 灸를 해야하는 穴을 黑과 赤의 點으로 標示하여 區別했으니 “黑點은 灸를 禁하고 赤點은 灸를 해도 좋다.”<sup>33)</sup> 고 했다.

즉, 王焘는 先人の 經驗을 繼承하여 發展을 이루고, 同時에 經을 따라 穴을 取하는 方式을 灸에 運用하였는데 이것은 王焘의 灸法의 特徵이다. 그리고 이러한 要素들은 <外臺秘要>가 鍼灸 學術史에서 어느 정도 獨自의 領域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3) 寶材와 <扁鵲心書>

寶材는 11世紀 南宋. 紹興 時期의 사람으로 太醫令을 지낸 有名한 醫家이다.<sup>34)</sup>

寶材는 道家의 思想을 影響받아 “保扶陽氣爲本”이라는 主張을 펴서 人體의 陽氣의 存在는 生命의 棼추지 않는 重要한 要素라 여겼다. 그가 말하길: “陽精은 壯千年壽가 되고, 陰氣가 強해지면 傷하게 된다.” “陰氣가 없어지지 않으면 죽고, 陽精은 있으면 長生하게 된다.” 그러므로 “陽氣를 保存하는 것이 본이다.”<sup>35)</sup> 라고 主張하였다. 그리

29) 王焘 撰 : 上揭書, P.1077 “明堂甲乙 是醫人之秘寶 後之學者 宜遵用之”

30) 王焘 撰 : 上揭書, P.1094

31) 王焘 撰 : 上揭書, P.1077 “有經而無圖則不能明脈俞之會合 有圖而無經則不能論百疾之要也”

32) 王焘 撰 : 上揭書, P.1077 “今因十二經而畫圖人十二身也”

33) 王焘 撰 : 上揭書, P.1077, “其穴墨點者 禁之不宜灸 朱點者 灸病爲良”

34) 謝錫亮·許曉琳 編著 : 上揭書, P.22

35) 寶材 輯, 李曉露·于振宜 點校 : 扁鵲心書, 中醫古籍出版社, 1991, P.8, ‘須識扶陽’篇

“陽精若壯千年壽, 陰氣如強必斃傷”, “陰



고 “保命之法 灼艾第一 丹藥第二 附子第三”<sup>36)</sup>, “醫之治病用灸 如做飯需薪”<sup>37)</sup> 이라 하여 灸法을 각종 治法의 위에 놓았으며, 그의 著書인 <扁鵲心書>에서 말하는 病證과 醫案은 百中에 九十이 灸法을 利用한 것이다.

寶材는 <扁鵲心書> 三卷을 著述하였는데 이 冊은 西紀 1146년에 完成되었으며 寶材가 臨床의 艾灸를 紹介한 冊이다. 上卷은 經絡灸法에 대하여 論하였고, 中卷과 下卷은 傷寒諸證과 內科雜病, 外科, 婦人科, 小兒科와 약간의 病證을 論하였다. 이 冊의 特徵은 灸法을 重視하여 溫補를 爲主로 하고 있고, 辨證論治를 重視하여 灸, 針, 藥 가운데 어느 하나에 偏重시키지 않고 病證에 따라 그 治法을 달리하였다.<sup>38)</sup>

寶材는 <扁鵲心書>에서 자신의 독특한 灸法을 論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內容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寶材 灸法의 特徵은 岐黃을 正派로 尊重하는 思想的 바탕 속에서 形成되었다. 예를 들어 <內經>에서의 ‘同病異治, 異病同治’라는 理論을 臨床에서 辨證하여 뜸을 떠주는 原則으로 삼고 있다. 즉, 一般 雜病에 辨證論治하여 分經取穴할 것을 主張하였다. 喉痺의 예로 들면: “喉痺에 걸린 사람은 목이 붓고 粥藥이 ‘넘어가지않고 四肢가 逆冷하고 六脈이 沈細하면 빨리 關元穴에 二百壯을 灸한다.” “喉痺로 痰氣가 上攻하고 咽喉가 막히면 天突穴 五十壯을 灸하고 빨리 粥을 먹는다.”<sup>39)</sup> 라고 한 것처럼 寶材는 同一한 喉痺症에

서 그 다른 病理의 變化를 把握하여 取穴의 각기 다름을 추리하였다. 그 의도는 前者는 陰이 盛한 것을 抑制하고 後者는 陽虛를 振作하였다. 以外에도 腹泄證을 原因別로 나누어 中焦虛寒일 경우에 中脘穴을 取하고, 腎陽虛衰하여 四肢厥逆하고 六脈細微하면 關元穴을 取한 것 등이 그 예이다.

둘째, 寶材는 取穴과 灸하는 壯數에서의 基準으로 扁鵲 灸法의 特徵을 繼承하였다. 즉, 灸를 할 때 取穴은 적게 하고, 治療 效果는 極大化하는 方法으로 灸한 壯數를 五百壯에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寶材는 “世俗에서 뜸을 떠줄 때 三壯, 五壯 혹은 十壯을 넘지 않으니 자못 少한 疾病을 治療할 때는 낮지만 生命을 維持시키는 어렵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銅人針灸圖經>에서 ‘무릇 큰 病에는 배꼽 아래에 뜸을 五百壯 떠주어 眞氣를 補充하여 이어준다’고 한 것이 곧 이 方法이다”<sup>40)</sup>라고 하였다. 또한, 어떤 사람이 “사람의 皮膚는 아주 여린데 五百壯 씩 灸하면 어찌 皮肉을 燒焦하지 않겠는가?”라고 묻자 말하길 “그렇지 않다. 이미 죽은 사람에 게 二·三十壯을 灸하면 皮肉이 겹겹이 타는데 이 는 血이 營養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眞氣가 脫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自然히 氣血이 흐르고 營衛氣가 全身을 돌기 때문에 비록 千壯을 灸했지만 어찌 문들어지고 타는 일이 있겠는가?”<sup>41)</sup>라고 하여 ‘要治大病. 根治疾病’의 認識하에 大量의 施灸를 重要視 하였다. 예를 들면 “사람의 身長이 五尺이고 肌肉이 마르면 關元을 三百壯 灸한다

氣未消終是死, 陽精若在必長生”

“故爲醫者, 要知保扶陽氣爲本”

- 36) 寶材 輯, 李曉露·于振宣 点校: 上揭書, P.9, ‘住世之法’篇
- 37) 寶材 輯, 李曉露·于振宣 点校: 上揭書, P.9, ‘大病宜灸’篇
- 38) 李栽東·金南一 共編: 中國 針灸醫學의 歷史, 集文堂, 1997, P.240
- 39) 寶材 輯, 李曉露·于振宣 点校: 上揭書, P.32, 喉痺篇  
“人患喉痺 頤頰粗腫 粥藥不下 四肢逆冷 六脈沈細 急灸關元穴二百壯”

“人患喉痺 痰氣上攻 咽喉閉塞 灸天突穴五十壯 即可進粥”

- 40) 寶材 輯, 李曉露·于振宣 点校: 上揭書, P.9, ‘大病宜灸’篇  
“世俗用灸, 不過三五十壯, 殊不知去小疾則愈, 駐命根則難. 故 <銅人針灸圖經> 云: 凡大病宜灸臍下五百壯. 補接眞氣, 卽此法也.”
- 41) 寶材 輯, 李曉露·于振宣 点校: 上揭書, P.10, ‘大病宜灸’篇  
“或曰: 人之皮肉最嫩, 五百之壯, 豈不焦枯皮肉乎? 曰: 否. 已死之人, 灸二三十壯, 其肉便焦, 無血營養故也. 若眞氣未脫之人, 自然氣血流行, 榮衛環繞, 雖灸千壯, 何焦爛之有哉.”

42) “患者가 기침을 하며 땀이 나고 熱이 나며 四肢가 逆冷하며 六脈弦이 빠르면 關元 五百壯을 灸하고 나면 한 달이면 便安해진다.”43) “찬 飲食을 먹으면 肺氣를 傷하고 中府穴 五百壯을 灸하면 下氣하지 않고 以後에는 영원히 再發하지 않는다.”44) 등이다.

셋째, 寶材는 脾胃任脈의 經絡에서 取穴함이 많았는데 특히 關元, 命關(食寶) 二穴이 그것이다. 즉 “脾爲五臟之母 腎爲一身之根 …此脈若存則人不死” “…若不早灸關元 以救腎氣 灸命關 以固脾氣 則難保性命 脾胃爲人一身之根蒂 不可不蚤圖也”45) 라고 하여, 脾胃는 人身의 뿌리라는 것을 理由로 脾胃의 陽氣를 따뜻하게 하는 것을 重要하게 여기고 命關(食寶), 關元 二穴을 즐겨 使用하였는데 이는 異病同治의 뜻을 包含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 4-5日 마다 遍側에 땀이 나면 左命關에 百壯을 灸하면 治愈된다.”46), “傷寒을 앓고 六日째가 되어 약간의 노랑게(發黃)되면 醫師는 茵陳蒿湯을 使用하고, 다음날 더욱 노랑게 되면 命關에 五十壯을 灸하면 治愈가 된다.”47) 등등에서 볼 수 있다. 寶材 灸法은 寶氏의 學術思想을 集中的으로 나타낸 것으로 <扁鵲心書>에는 寶材灸法을 모두 五十條를 담고 있다. 이 五十條중 取穴은 모두 1-2 곳에 불과하며 단지 關元 또는 命關穴로 治療를 進行한 것은 34條나 된다.

넷째, 灸法의 運用에 特色이 있는 것으로 사람이 艾灸의 痛症을 이겨내지 못하면 大麻花 같은 一種의 麻醉方으로서 ‘睡聖散’48)을 服用시켜 昏睡

하여 痛症을 못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寶氏가 發明한 全身麻醉灸治療法이다.

다섯째, 灸法을 急病이나 大病에 應用하였다. 그 예는 傷寒, 陰疽肉蝕, 虛勞痰火, 中風, 水腫, 鼓脹, 脾泄暴注, 尸厥, 久痢, 脾瘡 등이다. 그는 “만약 灸할 時期를 놓치면 그 氣가 벌써 빠져 나갔으므로 뜸을 떠 주어도 소용이 없다”49)라고 하여 危篤한 病에 빨리 灸할 것을 말하여 晉代 葛洪의 救急醫療를 繼承하였다.

여섯째, 難治病에 대한 40여개의 臨床例를 들어 論하고 있다.

寶材는 華佗가 曹操에게 頭風治療로 針刺한 問題에 대해 王焘와 같은 見解를 가지고 있었고 寶材가 비록 灸法을 崇尚하나 針을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寶材는 漢의 曹翕, 晉의 葛洪, 唐의 王焘 등을 繼承하여 宋代에 灸法을 提唱한 代表의 人物중 하나이다. 寶材로 代表되는 溫補脾胃灸法學派는 金元時代以後의 灸法에 많은 影響을 미친 것이 分明하다.

### Ⅲ. 考 察

灸法은 針法과 함께 韓醫學의 一翼을 擔當하고 있는 治療法으로서 艾葉을 使用하여 人體 皮膚上의 一定 部位에 點火燃燒시켜 艾葉 特有的 芳香을 發生케 하여 溫熱의 刺戟으로 灸火의 熱力을 肌膚에 透入시켜 經絡의 作用을 통하여 氣血을 溫通시킴으로써 各種 機能을 調節하고 身體健康을 增進시켜 疾病治療와 防痛, 緩和, 恢復, 豫防의 目的이 있는 一種의 外治法이다.50)51)

42) 寶材 輯, 李曉露·于振宣 点校: 上揭書, P.71, ‘骨縮病’篇

43) 寶材 輯, 李曉露·于振宣 点校: 上揭書, P.34, ‘虛勞’篇

44) 寶材 輯, 李曉露·于振宣 点校: 上揭書, P.65, ‘膏肓病’篇

45) 寶材 輯, 李曉露·于振宣 点校: 上揭書, P.19, ‘附: 寶材灸法(計五十條)’篇

46) 寶材 輯, 李曉露·于振宣 点校: 上揭書, P.35, ‘虛勞’篇

47) 寶材 輯, 李曉露·于振宣 点校: 上揭書, P.30, ‘汗後發噎’篇

48) 寶材 輯, 李曉露·于振宣 点校: 上揭書, P.10, ‘大病宜灸’篇

“唯是膏梁之人, 不能忍耐痛楚, 當服睡聖散, 即昏不知痛.”

--‘睡聖散’의 構成藥材는 山茄花, 火麻花 두 가지로 8월에 採取하며 이 藥의 服用法은 가루내어 每回 3錢씩, 小兒는 1錢씩 茶나 酒로 服用한다.

49) 寶材 輯, 李曉露·于振宣 点校: 上揭書, P.9, ‘大病宜灸’篇, “若灸遲, 眞氣已脫, 雖灸亦無用矣”

“灸”의 文字가 가장 처음 記載된 것은 <莊子. 盜蹠篇>에서 “丘所謂無病而自灸也.”라고 하였고, 또한 <孟子. 離婁篇>에서 “今人欲王者, 猶七年之病, 求三年之艾也.”라고 하였다.<sup>52)</sup> 이로 미루어보아 春秋戰國時代에 이미 灸法이 盛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심지어 歷史傳記중에도 灸法의 記載가 있으니 <左傳>에 보면 “成公十年(紀元前 581年, 晉) 景公이 病에 걸렸는데 秦國 太醫令 醫綏이 와서 보고 말하기를 ‘疾不可爲也, 病在膏之上, 膏之下, 攻之不可, 達之不及, 藥不治焉.’이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攻”은 곧 灸法을 가리키고 “達”은 곧 針砭을 말한다.<sup>53)</sup> 이처럼 灸法의 影響은 매우 深遠하였던 것이다.

灸法은 古代에는 灸熯이라 하였는데, 漢代 許慎의 <說文解字>에서는 “灸, 灼也, 從火音 ‘久’. 灸乃治病之法, 以艾燃火, 按而灼之.”<sup>54)</sup> 라고 하여 灸治가 바로 燒灼의 의미가 있다고 했으며, 灸의 材料로는 最初에 樹枝가 쓰여졌으나 점차 艾를 이용한 艾灸療法이 이용되었으며 이는 <素問. 湯液醪醴論>에서 “鑱石針艾 治其外也”<sup>55)</sup> 라고 한데서 根據를 둘 수 있다.<sup>56)</sup>

<素問. 異法方宜論>에서 “北方者, 天地所閉藏之域也, 其地高陵居, 風寒冰冽, 其民樂野處而乳食, 藏寒生滿病, 其治宜灸熯, 故灸熯者, 亦從北方來”<sup>57)</sup> 라고 한것도 역시 灸法의 發生 및 由來가 寒冷한 生活環境 및 發病特徵과 밀접한 關係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한 ‘灸熯者는 從北方來’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 以前에 灸法이 이미 있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sup>58)</sup>

1973년 長沙市 馬王堆 3號 古墳에서 出土된 帛書중에 2種의 古代 書籍인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은 그전까지 가장 오래된 醫書로 公認되어온 <黃帝內經>보다 時代적으로 앞선 것으로 認定되는 醫書로, 여기에는 經脈循行의 部位와 그 經脈이 主하는 病症 및 灸治所宜가 나타나 있고 동시에 出土된 <五十二病方>에서는 藥物治療法을 配合함과 동시에 灸法, 角法, 浴法, 薰蒸法, 熨法 등을 敘述해 놓았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黃帝內經> 成立以前에는 비교적 완전한 灸法의 基礎理論과 풍부한 臨床經驗이 있었으며 灸法만을 論하였을 뿐 針法은 論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sup>59)</sup>

이후 戰國時代에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黃帝內經>에 이르러서는 灸法의 起源에서부터 각종 灸法의 技法 및 그 適應症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灸法에 대한 內容이 記載되어 있는데, <靈樞. 經脈篇>의 “陷下則灸之”<sup>60)</sup>에서는 ‘溫經散寒’의 治療效果 뿐만 아니라 ‘寒者熱之’의 大原則을 구체화한 것이라 볼 수 있고, <靈樞. 官能篇>의 “針所不爲, 灸之所宜, …… 陰陽皆虛, 火自當之”<sup>61)</sup>에서는 灸治療의 適應症이 매우 넓고 어떤 重한 疾病에 針刺治療로 效果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 灸治療로 바꾸어 바라던 效果를 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素問. 骨空論>의 “灸寒熱之法, 先灸項大椎”, “大風汗出, 灸譙諱”, “失枕……灸脊中”<sup>62)</sup>와 같이 臨床적으로 內臟疾患治療에 效果가 있는 背俞穴을 응용하였음을 볼 수 있고, <靈樞. 背俞篇>의 “灸之則可, 刺之則不可. 氣盛瀉之, 虛則補之”<sup>63)</sup>라 하여 이를 강조하였다. <靈樞. 經水

50) 崔容泰·李秀鎬 共著 : 上揭書, P.42.

51) 全國韓醫科大學校, 針灸經穴學教室, 鍼灸學(下), 集文堂, 서울, 1988, P.1051

52) 康銷彬 : 針灸灸法學,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4, P.8

53) 林昭庚·鄒良 著 : 針灸醫學史,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10.

54) 段玉裁 撰 : 說文解字注,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中華民國72年, P.483

55) 洪元植 編纂 :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1983, 湯液醪醴論篇 第十四, P.49

51) 全國韓醫科大學校, 針灸經穴學教室, 鍼灸學(下), 集文堂, 서울, 1988, P.1051

52) 康銷彬 : 針灸灸法學,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4, P.8

53) 林昭庚·鄒良 著 : 針灸醫學史,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10.

54) 段玉裁 撰 : 說文解字注,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中華民國72年, P.483

55) 洪元植 編纂 :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1983, 湯液醪醴論篇 第十四, P.49

篇>에 이르길, “其治以針艾”<sup>64)</sup>라 하여 ‘針艾’ 가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艾’ 는 <黃帝內經>에서 灸治療의 대명사로서 <黃帝內經>以前에 針石과 艾灸가 여러 疾病治療에 結合應用됨이 이미 盛行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후 많은 臨床經驗과 醫學知識의 蓄積으로 灸法은 계속 變化, 發展하여 灸法을 통한 多様な 臨床治療가 歷史的 過程을 통해 많은 醫書에 收錄되어지기 시작했다.

漢代의 張仲景은 <傷寒論>에서 비록 方脈을 증시했으나 여러 가지 病證에 ‘可火’, ‘不可火’, ‘不可以火攻之’ 등의 灸의 適應症과 禁忌症을 많이 기록해 놓았다. 또한 “少陰病, 下利, 脈微澁, 嘔而汗出, 必數更衣, 反少者, 當溫其上, 灸之”<sup>65)</sup>와 “少陰病, 吐利, …脈不至者, 灸少陰七壯”<sup>66)</sup>등과 같이 少陰病의 치료에 있어서는 灸치료를 중요시하였다.

三國時代에는 曹操의 아들인 東平王 曹芳이 灸法을 연구하여 <曹氏灸方>7卷을 撰集하였는데 이것이 最初의 灸治療法만을 專門으로 記述한 冊이다. 曹芳의 <灸經>은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을 繼承하였는데 <足臂十一脈灸經>과 比하면 灸法의 孔穴이 많이 增加되었고, 灸法의 禁忌에 대해 구체적으로 說明하였으며, 曹芳의 灸法이 널리 傳播되어 晉의 葛洪, 唐의 王燾 등에 깊은 影響을 주었다.

兩晉·南北朝時期에는 皇甫謐·秦承祖 등 黃帝 針灸의 一派가 있었고, 葛洪·陳延之·僧深師 등의 灸法一派가 있었다.<sup>67)</sup>

西晉時代의 皇甫謐은 <素問>, <針經>, <明堂孔穴針灸治要>등 3卷의 내용을 종합하여 <針灸甲乙經>을 編纂하였는데, 이 冊은 針灸關係만을 전문으로 다룬 현존하는 最古의 醫書로서 臟腑經絡, 脈診理論, 經穴部位, 鍼灸法 및 禁忌, 病因病理 및 疾病의 證候, 針灸取穴 등을 서술하여 鍼灸學의 專門化, 系統化 및 그 發展에 중대한 영

향을 미쳤다.

晉代 葛洪의 著作인 <肘後備急方>에는 霍亂吐利에 대하여 急히 救하는데 역시 灸治療를 중요시하였다. 葛洪은 針法과 灸法 가운데 대부분 灸法을 爲主로 하고 있어 그 基礎理論을 充實히 整理해 주었고, 灸法을 危急한 症狀에 使用하기 簡便하게 하고 있으며, 隔鹽灸·隔蒜灸에 대한 內容이 있어 隔物灸에 대해 最初로 記錄하였고, 뜸을 뜰 때의 壯數의 基準을 設定하였다. 또한 唐代 王燾에게 그의 學術思想을 繼承하였다.

南北朝時期에는 北方에서 灸法을 배워온 사람이 있어서 灸法이 盛行하였는데 <南史·齊本紀第四>에 “貴賤爭取之, 多得其驗, 二十餘日都下大盛, 咸云聖火, 詔禁之不止, 火灸之七炷而疾愈”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미 당시의 民間層에 灸法이 상당히 盛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sup>68)</sup> 그래서 이미 灸로 霍亂을 豫防하고 三里灸로 각 病은 治療되는 保健灸法이 생겼다. 또한 瓦甌灸를 最初로 使用하였는데 이는 器械灸의 先驅이다.

西晉·南北朝時期에는 <偃側圖>, <明堂圖> 등의 針灸腧穴圖가 出現하여 灸治療의 腧穴을 직접 觀할 수 있게 되었고, 同時에 기타 灸經, 針灸經, 및 孔穴書卷등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

唐代에는 <舊唐書·職官志>에 “太醫令掌醫療之法, 丞爲之貳; 其屬有四: 曰醫師, 針師, 按摩師, 呪禁師, 皆有博士以教之”라 하였고, 또 <新唐書·百官志>에는 “針博士一人, 從八品上”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唐代에 醫科學校가 건립되고 針灸科를 설치하여 針博士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였고<sup>69)</sup>, 唐太宗은 또한 甄權 等人에게 <明堂>을 校訂하도록 命하여 <明堂人形圖>을 만들었으니 唐代에는 針灸를 重視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역사상 最初의 彩色經絡腧穴圖인 <明堂三人圖>가 만들어져 “其十二經脈五色作之, 奇經八脈以綠色爲之”라 했다.<sup>70)</sup>

同時代의 孫思邈이 撰集한 <備急千金要方>, <

64) 洪元植 編纂: 上揭書, 經水篇 第十二, P.99~100

65) 蔡仁植 著: 傷寒論譯註, 高文社, 1987, P.230

66) 蔡仁植 著: 上揭書, P.207

67) 郭世余 編著·朴寅圭 譯: 上揭書, P.66

68) 林昭庚·鄒良 著: 上揭書, P.83

69) 郭世余 編著·朴寅圭 譯: 上揭書, P.75

70) 林昭庚·鄒良 著: 上揭書, P.115~116

千金翼方>에서는 針灸竝用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灸의 量을 중요시하여 施灸壯數가 많게는 百壯에 이르렀다. 臨床에 있어서 艾灸와 藥物의 結合運用은 <千金方>중에 記載되어 있는 隔蒜灸, 豆豉灸, 黃蠟灸, 隔鹽灸, 黃土灸 等等이 있다. <千金要方, 七竅病下>중에는 竹筒과 葦筒으로 귀를 막아 筒口에 施灸하여 耳病을 치료하는 '筒灸'<sup>71)</sup>가 나오는데 이는 器械를 利用한 灸治療의 元祖라 할 수 있다.

孫思邈과 同時代에 王燾는 <外臺秘要, 中風及諸風方一十四首>에서 灸治療의 應用을 더욱 重要視하였으며 말하기를 “聖人以為風是百病之長, 深為可憂, 故避風如避矢. 是以禦風邪以湯藥. 針灸, 蒸熨, 隨用一法, 皆能愈疾. 至於火艾, 特有奇能, 雖曰針, 湯, 散, 皆所不及, 灸為其最要”라고 하였다. 兼하여 灸는 “醫之大術, 宜深體之, 要中之要, 無過此術”이라고 하였다.<sup>72)</sup> 王燾는 많은 針灸書籍의 內容을 整理·保存함으로써 針灸學術 發展에 貢獻을 했을 뿐 아니라 灸法의 發展에도 많은 貢獻을 하였는데, 治療面에 있어서 效果가 탁월한 灸法을 爲主로 할 것을 主張하고 특히 理論을 통해서 臨床에 運用함으로써 灸法의 補瀉問題, 八木火法問題, 風·寒·熱의 灸法問題, 衰老盛壯의 灸法問題등 灸治療의 많은 問題를 總結하였다. 그리고 <黃帝明堂經>과 <甲乙經>을 崇尚하여 이를 많이 參考하였으나, 그의 治療經驗을 總括하여 腧穴 및 主治症을 添加하고 灸의 壯數에 대해서도 <甲乙經>과 差異를 보였으며, 以外에도 12經脈과 腧穴을 기록한 明堂圖를 그리고 禁灸穴과 可灸穴을 區別하는 등 先人의 經驗을 繼承하여 發展을 이루고, 同時에 經을 따라 穴을 取하는 方式을 灸에 運用함으로써 獨自의 灸法의 領域을 이루었다.

이외에 崔知悌의 <骨蒸病灸方>은 灸法만으로 癆病을 치료하는 것을 專門적으로 소개하였고, <新集備急灸經>은 灸治療만으로 急症을 치료하는

것을 專的으로 論하였는데 唐朝에 이미 '灸師'<sup>73)</sup>라는 職業名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내용들이 盛唐時代에 이미 灸法이 정식으로 하나의 독립된 學文으로 發展하였다는 것을 意味한다.

宋代에는 醫學중에서 鍼灸學을 더더욱 重要하게 생각하여 좀 더 發展하였다. 宋代의 유명한 針灸醫家인 王維一은 <銅人腧穴針灸圖經>을 撰集하고 銅人模型 2具를 設計製造하여 밖으로 經絡腧穴을 새기고 안으로 臟腑를 두어 孔穴의 統一에 대해 아주 큰 作用을 일으키니 실로 針灸歷史上 중요한 成就라 할 수 있다.

또한 王執中의 <針灸資生經> 및 그 前後의 <小兒明堂針灸經>, <膏肓俞穴灸法>, <西方子明堂灸經> 및 <明堂經>, <針灸經> 등 理論과 실제 操作上에 있어 不同한 針灸流派가 형성되니 灸治療學의 內容이 아주 豊富해지게 되었다.

이외에 宋代의 針灸書籍중에는 “天灸”, 혹은 “自灸”의 기록이 있는데,<sup>74)</sup> 이것은 毛茛菪, 芥子泥, 旱蓮草, 斑蝥 등의 刺戟性 物質을 有關部位에 貼數하여 發泡케하는 方法으로 溫熱刺戟과는 다른 특별한 施灸方法이다. 또한 宋代에는 灸로 外科의 癰疽와 같은 瘡病을 治療하는 것이 流行하였다.<sup>75)</sup>

宋代의 <太平聖惠方>, <普濟本事方>에서 <聖濟總錄> 등의 여러 冊에서도 많은 灸治療의 內容이 收集되어 있다.

宋代, 寶材의 <扁鵲心書>는 灸法으로 각종 疾病을 治療하였다는 것을 記錄한 專門書籍인데 <扁鵲心書, 須識扶陽>에서는 항상 關元, 氣海, 中脘 諸穴을 灸하면 “雖未得長生, 亦可保百餘年長壽”라고 하였다. 寶材는 “保命之法 灼艾第一”이라 하여 灸法을 각종 治法의 위에 놓았으며, 그의 著書인 <扁鵲心書>에서 대부분 灸法을 利用하였다. 그는 岐黃을 正派로 尊重하여 灸治療할 病證에 대해 辨證論治하여 分經取穴할 것을 主張하였고, 取穴과 灸하는 壯數에서의 基準으로 扁鵲 灸法의 特徵을 繼承하여 灸를 할 때 取穴은 적게

71) 程寶書 主編：新編針灸大辭典, 華夏出版社, 1995, P.897

72) 王燾 撰：外臺秘要, 人民衛生出版社影印, 北京, 1996, P.375

73) 林昭庚·鄒良 著：上揭書, P.222

74) 程寶書 主編：上揭書, P.98

75) 郭世余 編著·朴寅圭 譯：上揭書, P.128

하고, 治療效果는 極大化하는 方法으로 灸한 壯數를 五百壯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大量의 施灸를 重要시 하였다. 또한 脾胃는 人身의 뿌리라는 것을 理由로 脾胃의 陽氣를 따듯하게 하는 것을 重要하게 여기고 命關(食寶), 關元 二穴을 즐겨 使用함으로써 異病同治의 뜻을 表現하였다. 그리고 一種의 麻醉方으로서 '睡聖散'을 服用시켜 昏睡하여 痛症을 못 느끼게 하는 全身麻醉灸治療法을 發明하였으며, 灸法을 急病이나 大病에 應用하였고, 難治病에 대한 40여개의 臨床例를 들어 論하였다. 寶材는 漢의 曹翕, 晉의 葛洪, 唐의 王燾 등을 繼承하여 宋代에 灸法을 提倡하였으며, 溫補脾胃 灸法學派로 金元時代以後의 灸法에 많은 影響을 주었다.

明代에는 鍼灸學의 全盛時期로 이 時期에는 여러 針灸學家들이 出現하였는데 그 중에 楊繼洲의 <鍼灸大成>은 鍼灸學을 '承上啓下'<sup>76)</sup> 함으로써 後世 針灸專門書籍에 影響을 미쳤다. 또한 그 前後로 徐鳳의 <針灸大全>, 高武의 <針灸聚英>, 張介賓의 <類經圖翼>, 汪機의 <針灸問對> 등도 모두 鍼灸學 發展에 마땅한 貢獻을 하였다.

明代에는 또한 古代의 樹枝灸의 方法을 參考하여 '桑枝灸'와 麻油에 담근 桃木에 불을 붙인 후 꺼져가는 熱을 붙어서 綿紙에 놓아 熨灸하는 '神針火灸'가 있었다. 이 方法은 또 後에 發展하여 藥末과 艾絨을 혼합하여 만든 艾卷으로 뜨겁게 하는 '雷火針灸', '太乙針灸'가 되었고 近代의 艾條灸와 藥艾條灸에 응용되어 灸法과 古代灸法의 結合運用으로 認識되었다. 明代에는 또한 기름에 담근 燈草를 點火하여 病人의 피부위에서 직접 燃燒하는 일종의 灸法인 燈火灸에 대한 記錄도 있다. 또 거울을 이용하여 日光을 採取하여 施灸하는 '陽燧灸'가 있었는데 最近에는 '日光灸'로 變化하였다.<sup>77)</sup>

清代에는 吳謙 等人이 撰集한 <醫宗金鑑. 刺灸心法要訣>에서는 以前까지의 針灸經驗의 基礎를

總括하였고 歌訣의 形式을 빌어 針灸의 각종 內容을 나타내 初學者에게 쉽게 의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針으로 하는 灸의 太乙神鍼法이 세상에 널리 使用되었으며, 吳亦鼎의 <神灸經綸>은 또 하나의 灸法만을 다룬 專門書籍으로 灸治療學이 고도의 發展을 이루었음을 나타낸다. 비록 清朝末年에 帝國主義의 侵入으로 灸法이 災難에 휩싸였으나, 많은 大衆들이 灸治療를 願하여 灸法은 民間에 널리 流傳되어 各種 疾病과 痛症을 治療하게 되었고 더불어 그 簡·便·廉·驗으로 因해 大衆들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 IV. 結 論

宋代까지의 注重灸法派의 各家學說 중에서 특히 '虛實寒熱을 論하지 말고 無所不宜로 灸하라'는 學說을 繼承·發展시켜 온 醫家들의 學說 및 著書에 대해 歷史的·文獻的 資料를 통한 研究와 分析, 그리고 이를 통해 灸法의 歷史的 變遷 過程을 考察해 본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馬王堆 漢墓 帛書 중에서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은 現存하는 最初의 灸法 專門書로서 모두 治療方法으로 灸法만을 論하고 있고, 曹翕의 <灸經>은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을 繼承하여 만든 또 하나의 灸法 著書로서 <足臂十一脈灸經>과 比하면 灸法의 孔穴이 많이 增加되었고, 灸法의 禁忌에 대해 구체적으로 說明하였으며, 曹翕의 灸法이 널리 傳播되어 晉의 葛洪, 唐의 王燾 등에 깊은 影響을 주었다.

2. 晉代에서 宋代까지의 時期는 注重灸法派가 월등한 優勢를 點하였는데, 晉代 葛洪·陳延之, 唐代 孫思邈·王燾, 宋代 莊綽·寶材·許叔微·王執中·聞人耆年 등은 灸法을 重視한 大家들이 다. 宋代 以後에는 針灸法을 重視한 學派가 興起함으로 因해 注重灸法派는 勢力이 減少되었으나 代를 이어 命脈을 維持해 나갔으니, 元代 羅天益·

76) 郭世余 編著·朴寅圭 譯：上揭書, P.193  
'前代를 繼承하고 後代에 일깨움을 주었다.'  
77) 章逢潤·耿俊英 主編：中國灸療學, 人民衛生出版社, 1989, P.3

朱丹溪·胡元慶, 明代 危亦林·薛立齋·張介賓·龔居中, 清代 葉廣祚·吳亦鼎 등이 灸法을 重視하였다.

특히 灸法은 能히 百病을 通治하니 虛實寒熱을 論하지 말고 無所不宜로 灸하라고 認識한 部類로 葛洪·陳延之·王燾·竇材·龔居中 등이 있다.

3. 葛洪은 그의 著書인 <肘後備急方>에서 針法과 灸法 가운데 대부분 灸法을 爲主로 하고 있어 그 基礎理論을 充實히 整理해 주었고, 灸法을 危急한 症狀에 使用하기 簡便하게 하고 있으며, 隔鹽灸·隔蒜灸에 대한 內容이 있어 隔物灸에 대해 最初로 記錄하였고, 뜸을 뜰 때의 壯數의 基準을 設定하였다. 또한 唐代 王燾에게 그의 學術思想을 繼承하였다.

4. 王燾는 그의 著書인 <外臺秘要>에서 많은 針灸書籍의 內容을 整理·保存함으로써 針灸學術發展에 貢獻을 했을 뿐 아니라 灸法의 發展에도 많은 貢獻을 하였는데, 治療面에 있어서 效果가 탁월한 灸法을 爲主로 할 것을 主張하고 특히 理論을 통해서 臨床에 運用함으로써 灸法의 補瀉問題, 八木火法問題, 風·寒·熱의 灸法問題, 衰老盛壯의 灸法問題등 灸治療의 많은 問題를 總結하였다. 그리고 <黃帝明堂經>과 <甲乙經>을 崇尚하여 이를 많이 參考하였으나, 그의 治療經驗을 總括하여 腧穴 및 主治症을 添加하고 灸의 壯數에 대해서도 <甲乙經>과 差異를 보였으며, 以外에도 12經脈과 腧穴을 기록한 明堂圖를 그리고 禁灸穴과 可灸穴을 區別하는 등 先人의 經驗을 繼承하여 發展을 이루고, 同時에 經을 따라 穴을 取하는 方式을 灸에 運用함으로써 獨自의 灸法의 領域을 이루었다.

5. 竇材는 “保命之法 灼艾第一”이라 하여, 灸法을 각종 治法의 위에 놓았으며, 그의 著書인 <扁鵲心書>에서 대부분 灸法을 利用하였다. 그는 岐黃을 正派로 尊重하여 灸治療할 病證에 대해 辨證論治하여 分經取穴할 것을 主張하였고, 取穴과 灸하는 壯數에서의 基準으로 扁鵲 灸法의 特徵을

繼承하여 灸를 할 때 取穴은 적게 하고, 治療效果는 極大化하는 方法으로 灸한 壯數를 五百壯에 까지 이르게 하는 등 大量의 施灸를 重要시 하였다. 또한 脾胃는 人身의 뿌리라는 것을 理由로 脾胃의 陽氣를 따뜻하게 하는 것을 重要하게 여기고 命關(食竇), 關元 二穴을 즐겨 使用함으로써 異病同治의 뜻을 表現하였다. 그리고 一種의 麻酔方으로서 ‘睡聖散’을 服用시켜 昏睡하여 痛症을 못 느끼게 하는 全身麻酔灸治療法을 發明하였으며, 灸法을 急病이나 大病에 應用하였고, 難治病에 대한 40여개의 臨床例를 들어 論하였다. 竇材는 漢의 曹翕, 晉의 葛洪, 唐의 王燾 등을 繼承하여 宋代에 灸法을 提倡하였으며, 溫補脾胃 灸法學派로 金元時代以後의 灸法에 많은 影響을 주었다.

## V. 參考文獻

1. 崔容泰·李秀鏞 共著 : 精解鍼灸學, 杏林書院, 1974.
2. 李栽東·金南一 共編 : 中國 針灸醫學의 歷史, 集文堂, 1997.
3. 章逢潤·耿俊英 主編 : 中國灸療學, 人民衛生出版社, 1989.
4. 陳克正 主編 : 古今針灸治驗精華,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5. 謝錫亮·許曉琳 編著 : 灸法, 山西人民出版社, 1984.
6. 魏稼 主編 : 各家鍼灸學說,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3.
7. 郭世余 編著·朴寅圭 譯 : 中國針灸史, 圖書出版信成, 1987.
8. 尹鍾和·金甲成 : 馬王堆 漢墓出土 醫書中 足臂十一脈灸經 및 陰陽十一脈灸經과 靈樞經脈篇과의 比較 考察, 韓醫學研究所論文集 第一輯, 1992.
9. 周一謀·蕭佐桃 主編 : 馬王堆醫書考注,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8.
10. 葛洪 撰 : 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
11. 丹波康賴 撰, 翟雙慶·張瑞賢 校注 : 醫心方, 華夏出版社, 北京, 1993.

12. 王燾 撰：外臺秘要，人民衛生出版社影印，北京，1996.
13. 寶材 輯，李曉露·于振宣 點校：扁鵲心書，中醫古籍出版社，1991.
14. 程寶書 主編：新編針灸大辭典，華夏出版社，1995.
15. 全國韓醫科大學校，針灸經穴學教室，鍼灸學(下)，集文堂，서울，1988.
16. 康銷彬：針灸法學，河北科學技術出版社，1994.
17. 段玉裁 撰：說文解字注，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中華民國72年.
18. 洪元植 編纂：精校黃帝內經素問，東洋醫學研究院，1983.
19. 洪元植 編纂：精校黃帝內經靈樞，東洋醫學研究院，1985.
20. 金惠敬 外 2人：灸法의 特性에 關한 文獻的 考察，大韓韓醫學會誌，Vol.14, No.1, 1993.
21. 蔡仁植 著：傷寒論譯詮，高文社，1987.